

# 직장불자회 법사 모시기 '별따기'

## 인력 부족...신행지도등 법회 어려움 종단차원 상임포교사 파견제도 필요

소규모로 모여 법회를 운영하는 직장불자회 회원들은 법회를 할 때마다 법사모시는 문제로 발을 동동 구른다. 상임 지도법사를 모실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관심 가져주는 스님도 없을 뿐더러 회원들이 적다보니 거마비 등 법회 때 법문 해줄 스님 모시기가 벅차기만 하다.

직장 직능 불자회의 신행을 점검해주고 이끌어주는 지도법사가 없는 곳이 많다. 최근 한국불교연문인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초청 간담회에서 직장불자회 지도법사 양성에 대한 건의를 했다. 가까운 절 주지스님들이 직장불자회를 하나씩 맡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거나 총무원이나 포교원내에 직장 불자회 정담 포교사를 두어 어디 불자회든 요청이 들어오면 즉각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수월치 않기에 법사 모시기와 관련해 법문요청을 하면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법문비'부터 묻고 '합당'해야만 응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형편 때문에 지도법사를 모시지 않고 법회를 운영하는 곳도 많다. 농림부 불자들의 모임인 농불회는 지도법사를 따로 모시지 않는다. 인근 보광사에 협조를 구해 가끔 그곳에서 법회를 불계하는 것 외에도 자체적으로 모여 불교 공부회를 하며 불행수행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정불회와 같이 창립부터 꾸준히 지도법사가 이끌고 있는 불자회는 많지 않다. MBC 불교연구회는 매주 정기법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몇 년 이상 계속해서 지원해주는 스님이 없어 몇개월 단위로 다른 스님을 법사로 모시거나 보통 고역이 아니다. KBS 불교연구회는 법회 때마다 법문을 해줄 법사스님을 섭외하는 것이 신행활동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토로한다.

10여명 안팎의 회원들이 모이는 소규모회에는 스님을 모시려 해도 오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스님을 모셔도 격정이 많다. 거마비 마련이 수월치 않기에 법사 모시기와 관련해 법문요청을 하면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법문비'부터 묻고 '합당'해야만 응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형편 때문에 지도법사를 모시지 않고 법회를 운영하는 곳도 많다. 농림부 불자들의 모임인 농불회는 지도법사를 따로 모시지 않는다. 인근 보광사에 협조를 구해 가끔 그곳에서 법회를 불계하는 것 외에도 자체적으로 모여 불교 공부회를 하며 불행수행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조계종 포교원에는 직장 불자회 담당 법사단을 구성해 달라는 요청이 종종 들어온다. 뿐만 아니라 법사 섭외 요청도 많다. 이에 대해 포교원은 종단 소임 스님이 법문을 하러 가거나 인근 사찰로 연계해주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포교원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사단 성립에 대한 계획은 없다. 포교원에서 임금을 주고 채용하는 형태로 법사단 구성을 고려하고 있으나 현재로는 예산 책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장 직능 불자회는 포교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단체들이고 각 분야별로 포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는 스님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스님 개개인의 관심에만 맡겨두서는 개인이 안되고 종단차원에서 법사 지원팀을 구성해주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직장불자회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 우리 모임에선

#### KEDO 연꽃회 봉축법회

KEDO 금호법당 연꽃회(회장 손동화)는 올해 봉축행사를 5월11일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와 재동행렬로 준비하고 있다.

3월부터 2백여개의 연등을 만들어 일부는 법당에 봉축장엄하고, 나머지는 부처님 오신날 재동행렬에 사용할 예정이다. 공사현장과 기숙사 법당 주변 약 2Km에 걸쳐 가로연등도 설치해 부처님오신날 봉축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금용단불자회 연합법회

금용단불자연합회는 22일 오후4시 잠실수험본점에서 제23회 연합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는 산업은행 불자회 등 10여개 은행 불자회 회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02) 398-6464

#### 다보회 화엄사 성지순례

다보회(회장 이영승)는 22일 구례 화엄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 불교대학 양남분원 개원

월성원자력 반야회는 불국사 부설 불교사회교육원의 불교대학(1년과정) 양남분원을 월성사택내의 반야선원에 12일 개원했다.

이에 앞서 영광원자력 선우회는 3월18일 불갑사에 아미타 불교대학(2년과정)을 개설했다.

###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이연주 (대표 점자도서실장)

내가 불교와 인연을 갖게 된 것은 은사이신 양만석 선생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면서이다.

나는 원래 시골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실명하여 87년 서울맹학교에 입학하면서 서울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러던 중 95년 원심회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불교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게 되었다.

나는 원심회 활동을 통해 많은 불심을 키워 왔다. 그러나 장애인 불자들이 불교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현실을 알게 되면서 안타까웠다. 사찰의 문턱은 직접 찾아가기에는 너무 높았으며 특히 점자본경은 전혀 없었다. 이런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하여 나는 양선생님과 원심회 여러 법우들의 도움을 받아 불경의 점자본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수의 법우님들 외에는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아 일이 생각처럼 쉽게 진행되지 않았다. 모든 일이 처음부터 쉽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는 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그 안타까움이란 이루

특히 점자도서실을 만드는 일은 불자들 모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의 시작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적 많이 바꾸는 하였으나 불교계가 바라보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에 불과한 것 같다.

불자라면 모두 불경을 읽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뜻을 기린다.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불경을 읽고 자 하는 사람에게 불경을 읽을 권리가 있다는 말이다. 언제까지 불경을 접할 수 있는 비장애인들이 알 수 없었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에



### 점자 불서 도서실 생겼으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결심은 하나 돌직구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과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쌓이고 쌓여 원심회 창립 10주년이 되는 1998년(법화경)을 4권으로 제작하여 전국 시각장애인 불자들에게 보급하는 성과를 이뤘다.

또 그리 큰 숫자는 아니지만 재법 많은 불자들의 관심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때문에 나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장애인이 불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다.

"바람처럼 물결처럼 살자"가 나의 좌우명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시각장애인 불자들이 적극적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좌우명을 잠시 접기로 하였다. 나의 원은 두 가지다.

그 하나는 중복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복시각장애인 재활기구를 만드는 것이고, 두번째는 시각장애인 불자들이 좀더 많은 불서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점자불서를 갖춘 점자도서실을 설립하는 것이다.

는 불경이 읽고 싶어도 읽을 책이 없다. 읽고 싶어도 읽을 권리가 없다. 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도 같다.

4월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하루만 반짝하는 기념일이 아니라 사찰에서 장애인 불자들을 위해 어떤 배려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날이었으면 좋겠다. 장애인 불자들이 사찰이라도 편히 드나들 수 있도록 사찰문턱을 낮춘다거나 보조안대를 둔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찰은 모든 불자들의 고향과 같은 곳이다. 불자의 자격으로 나는 그곳을 진정으로 가고 싶은 나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싶다.

사찰에 자주 가서 그윽한 향내음을 맡고 싶다. 그 곳에 들어가는 장애인불자를 포함하는 모든 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평하게 받았으면 한다. 어느 사찰에서도 가능한 일이다. 부처님의 자비를 아는 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가피를 함께 누리야 한다.

그로인해 장애인 불자들의 마음과 더불어 시각장애인 불자들의 마음에도 참된 연꽃이 피기를 기원한다.



한국전력본사 반야회 창립10주년 기념법회에서 한국전력인불자연합회가 창립됐다.

### 인터뷰 / 초대회장 김영창씨

#### "생활불교 불 밝힐터"



"교리공부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한전불자들의 신행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연합회 차원에서 수행 지도에 나설 겁니다."

전력인불자연합 초대회장에 선출된 김영창씨(53·사진)는 한전불자들은 새 시대에 걸맞은 변화를 가져야한다고 말한다. 한전 사내 정산망에는 '반야회' 홈페이지가 개설돼 전국 사업소의 불자는 물론 비불자들에게도 불법을 전하는 포교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4개 사업소에서 활동중인 불자회 외에도 올해내에 부산전력, 부산시 등 4곳이 더 창립될 전망이다. 앞으로 KEDO 연꽃회 지원 방안도 모색해 볼 계획이다.

김영창 회장은 "우리 한전불자들은 자신이나 소속 단체 내에서의 신행생활을 위주로 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전력인불자연합회 창립을 계기로 향후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회사변화에 대비함은 물론 전례문화 창달에 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궁극적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적극 실천하는 생활불교 생활불교로의 변화를 이뤄 나가자"고 밝혔다.

### 한전 불자연연합회 창립

#### 14개 불자회 구성...회장 김영창씨

한국전력 본사 반야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8일 거행된 기념법회에서 한국전력인불자연합회가 창립돼 그 첫 발을 내딛었다. 전력인불자연합회 초대회장은 한전 본사 반야회 회장 김영창씨가 선출됐다.

장현스님(조계종 포교원장)은 치사에서 "반야회의 창립 취지인 '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믿자'고 말하기는 쉬워도 지키기는 어렵다"며 "하루하루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각 사업장마다 새 법회가 생겨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날 법회에는 포교원장 정현스님, 봉은사 주지 원혜스님, 정일스님 등을 비롯해 한일병원 반야회 등에서 5백여명이 참석했다.

법에 앞서 니르바나 실내악단의 연주로 '불·꽃·선율의 조화 작은음악회'도 선보여 회원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현재 전력인 불자연연합회는 본사 반야회를 비롯해 한일병원 반야회, 북부지점 반야회, 인천화력 법우회, 전력연구원 반야회, 경주지점 사광회, 울산화력 법우회, 월성원자력 반야회·마야부인회, 울진원자력 문수회·승안회, 삼천포화력 반야회, 삼량전양사 보리회, 고리원자력 반야회, 영광원자력 선우회, KEDO 연꽃회 등 14개 불자회로 구성됐다.

김지연 기자

### 클릭! 새 홈페이지

■수국사 모여라(http://www.freechal.com/sukksa)-3월28일 개설. 수국사는 물론 불교에 관심있는 모든 불자들의 편안하고 아늑한 휴식공간.

■화성사 청년회(http://cafe.daum.net/gotobuddha)-3월28일 개설. 화성사 청년회 회원들의 모임.

■동남불교학생회(http://cafe.daum.net/dongbul)-3월29일 개설. 동남불교학생회 동문 및 재학생 모임

■불자의 방(http://cafe.daum.net/ogbbm)-3월31일 개설. 초발심자의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자녀들이나 친구에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불교의 근본 이야기 기타 신행생활에 대한 의문점 등을 논의하는 방.

■대둔사 학생회를 아시나요?(http://cafe.daum.net/daedunsu)-4월2일 개설. 대둔사 학생회 동문 및 회원들의 모임.

■나 한불인(http://www.freechal.com/nbc)-4월2일 개설. 한양대학교 한불회 모임, hbc.

■롬비니(http://cafe.daum.net/rombini)-4월5일 개설. 남원 롬비니 불교학생회 동문 및 회원들의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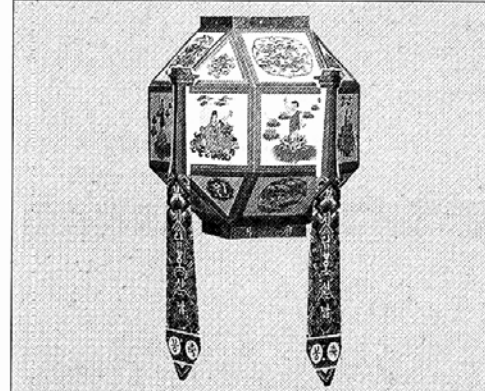
■동산불교청년회(http://cafe.daum.net/yinyen)-4월6일 개설. 불교기초교리, 시모음 등의 코너를 제공한다.

■조계사중고학생회동문모임(http://cafe.daum.net/cbg)-4월7일 개설. 조계사중고학생회 동문 및 회원들의 공간.

홈페이지를 개설한 불자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2)722-4162 jygang@buddhapia.com

###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 가격 동결 단행!!

● 어려운 사찰 경제에 외국인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 초벌용(8cm) ◆ 초벌용위에 연일을 붙인 상태 ◆ 연등원생품

문의 하실 곳 : (02)467-1513 H: (016)552-9360

###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 조립식 팔각등

####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난강으로 풀칠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 야외장엄용

「목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걸지 합지 방식)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

###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힐(힐)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비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인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밝혀졌습니다.

####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인은 끝

이 향비를 신원(배꼽)에 착용하면 방항약속식품의 성분이 신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적인 피문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은 생식기계 속을 과적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대가치 임피의 땀을 통해 모체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불순, 두통, 두근두근, 기미, 피부 및 혈액 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생리통·기미 33세권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 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의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라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깨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영희)

### 香妃



####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인은 끝

이 향비를 신원(배꼽)에 착용하면 방항약속식품의 성분이 신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적인 피문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은 생식기계 속을 과적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대가치 임피의 땀을 통해 모체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불순, 두통, 두근두근, 기미, 피부 및 혈액 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인은 끝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민첩이 없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8 생리주기가 정상이 아니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때 뱃배가 고통스럽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는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배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뱃배가 심한 편이다.
- 18 땀노니 감작성으로 고생을 당한다.

※ 1가지 이상 적용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